

10/16/99 (화)
동양일보

일제징용 첫 집단소송

피해자·유가족등 250여명 미국법원 통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피해자 및 유가족 250여명이 일본기업 등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처음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유족회(회장 김경석)는 25일(본국 시간)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춘천에서 총회를 갖고 미국에서 활동중인 해당 일본기업을 상대로 워싱턴주 타코마 연방지법과 가주 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이번주내로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족회는 지난 9월 미국 한인

으로서 처음으로 일본기업을 상대로 타코마 연방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최재식(76)씨의 법정대리인 윤영일 변호사(워싱턴주 레이쿠우드 거주)와 협의, 최씨 소송을 확대해 대규모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윤변호사는 “최근 담배 흡연피해 소송에서 승소했던 미국의 ‘헤이겐스 버먼’(Hagens Berman) 합동법률회사와 함께 전세계의 일제징용 한인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징용 피해자의 명단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이 집단으로 전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한 윤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법 제29조(강제징용 금지규정)와 지난 8월 2차대전 당시의 비인도적 징용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가주 특별법 그리고 외국인 학살피해 보호법이라는 미 연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 있는 일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아닌 일본기업을 상대로 미 법원에서 제기하는 소송인만큼 화해나 승소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률회사와 함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최소한 1인당 1만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할 것이며 일본회사가 패소했는데도 배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인에 있는 이 회사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족회는 당초 계획대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 141명에 대해 연말까지 일본법원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자중 징병이 아닌 일본기업에 강제 징용됐던 이들을 선별하기로 했다.